

# 출판인쇄에 적합한 전용 양면 인쇄기 도입

## 출판을 컬러화에 맞춰 8색 전용 양면기 도입

출판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주)신화프린팅코아퍼레이션(대표 이영실)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신사옥을 마련, 이전하고 올해 5월 아키야마 대국전 8색(4도/4도) 전용 양면 인쇄기를 도입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화프린팅은 1999년 1월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편면 인쇄기에 의존했던 출판인쇄를 같은 해 11월 JM의 4×6 전지 4색(2도/2도) 양면 전용 인쇄기를 도입하면서 신화프린팅의 양면 인쇄기 시대를 열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 인쇄업체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던 단납기, 저가격 경쟁, 시간 절감, 현장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시험적으로 도입한 양면 인쇄기는 예상대로 많은 장점을 가

지고 있었다. 특히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신화프린팅으로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양면 인쇄기의 장점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단납기 및 저가격 경쟁 대응이 용이하고, 인쇄 현장에서 인쇄물을 뒤집어 옮겨 쌓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 근무를 기피함으로써 생기는 인력 부족 문제를 다소 완화시키는 한편, 시간 절감과 인건비 절감 등은 제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도 자신 있는 영업활동까지 한 몫 해 양면 인쇄기에 대한 신뢰는 더욱 더 높아졌다.

결국 이러한 신뢰는 2000년 JM의 4×6 전지 양면 인쇄기와 아키야마의 대국전 양면 인쇄기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2001년에는 고모리의 국전 4색 편면 인쇄기와 JM의 4×6 전지 4색(2도/2도) 양면 인쇄기를 도입했다.

이후 늘어나는 물량과 출판물의 컬러화에 따라 지난 5월 아키야마의 대국전 8

색 전용 양면 인쇄기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 공간절약 등 메리트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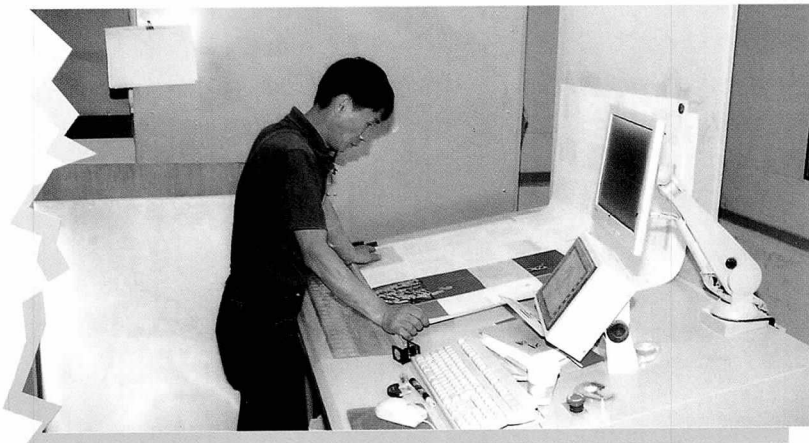
신화프린팅은 대지 524평에 건평 407평 2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쇄기 6대가 1층에 모두 설비돼 있다. 이것이 곧 전용 양면 인쇄기의 메리트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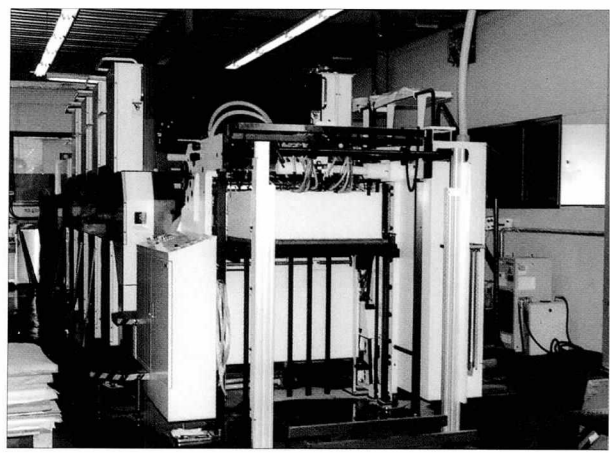
신화프린팅이 보유한 인쇄기를 편면 인쇄기로 설치한다면 현재의 2배정도 공간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길이가 줄고 높이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용 양면 인쇄기의 모양은 인쇄기 두 대를 겹쳐 놓은 듯하기 때문에 한 대에 비해 높이는 높아졌지만, 길이는 편면 인쇄기의 반 정도로 훨씬 짧아졌다.

공간 절약은 곧 돈이며, 돈은 곧 경쟁력이다. 이는 타사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고객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리가 짧아 작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지난 5월 신화프린팅에서 도입한 아키야마의 JPrint 4P440ACC4AE3(대국전 8색 전용 양면 인쇄기)는 비반전식 양면 인쇄기로서 그림퍼 마진이 필요 없어 종이 끝까지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인쇄를 할 수 있다.

이 기종은 오일 정화 및 쿨링 시스템을 장착하여 기계 가동 시 기계오일의 불순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오일의 온도를 일





신화프린팅이 보유한 인쇄기를 편면 인쇄기로 설치한다면 현재의 2배정도 공간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길이가 줄고 높이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용 양면 인쇄기의 모양은 인쇄기 두 대를 겹쳐 놓은 듯하기 때문에 한 대에 비해 높이는 높아졌지만, 길이는 편면 인쇄기의 반 정도로 훨씬 짧아졌다.

해야 된다는 말도 있듯이 지금이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화프린팅은 현재 대국전 8색, 국전 4색, 4×6 전지 4색 2대, 4×6 전지 2색, 대국전 2색 등 인쇄기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인원은 지난 5월에 8색 전용 양면 인쇄기가 도입되면서 2명이 추가된 것이다. 인원절감 효과로 인한 원가절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투자되고 있다.

새로 도입된 대국전 8색 전용 양면 인쇄기에 대한 운용은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장은 오히려 대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도입할 당시 약간의 우려는 있었지만 기장이 쉽게 적응하는 한편, 오히려 자동화된 기종이어서 더 편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품질면에서도 만족하고 있다”며 쉽고 빨리 새 기종에 적응했다고 귀띔해 주었다.

이 사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하루빨리 경기가 좋아지고 출판계도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신화프린팅은 앞으로 출판과 관련된 박엽지 분야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며, 현재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호 부장)

정하게 유지시켜줌으로써 인쇄기의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잉크롤러 항온 시스템을 장착하여 잉크롤러와 인쇄판면의 온도를 균일화함으로써 잉크 착육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인쇄 품질 및 인쇄정밀도를 향상시켜 준다.

게다가 이 인쇄기는 기능이 추가되거나 자동화돼 작업자에게도 많은 편의성을 제공한다.

세척액을 사용하지 않는 블랭킷 및 압통 동시 세척장치를 채용해 세척액 사용으로 인한 부담이 줄은 반면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실린더 코킹 및 플레이트 코킹 장치를 동시에 장착하고 있어 작업의 편의성 및 작업 준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정전기 제거장치와는 별도로 이온 블로어 등 정전제거장치를 장착해 박엽지 인쇄 시 정전기로 인한 불량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쇄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습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작업자의 부담을 한층

감소시켰으며, 인쇄판 장착 시 상부 4개 유닛의 판이 동시에 장착되고 다시 하부 4개판이 동시에 장착되므로 인쇄 작업 준비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 양면 인쇄기 장점 많아 추가 도입

(주)신화프린팅코아퍼레이션의 이영실 사장은 이번 아키야마의 대국전 8색 전용 양면 인쇄기 도입에 대해 “양면 인쇄기의 많은 장점을 접해 본 경험자로서 오래 전부터 도입하고 싶었던 기종이다. 특히 출판물의 컬러화로 인해 꼭 필요한 기종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영실 사장은 그동안 전용 양면 인쇄기를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을 기해 검토한 결과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요즈음의 경기 불황에도 인쇄기를 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물량확보와 함께 추가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 또 불황일수록 투자